

2020년 2월 4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지표 호전과 경기 부양 기대속 상승 알파벳 +3.48% Vs. 애플 -0.27%, 엑손모빌 -2.2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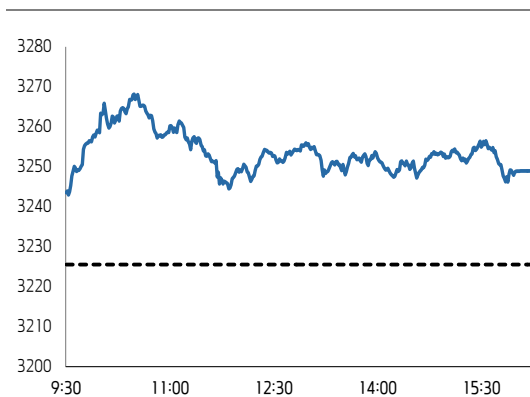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변화 요인: 지표 호전, WHO 발표

미 증시는 중국 증시 급락(-7.72%)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. 중국 인민은행이 1 조 2 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이 긍정적 영향. 특히 WHO 가 중국을 제외하면 감염증 확대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. 이 결과 감염증 사태가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입되자 강세(다우 +0.51%, 나스닥 +1.34%, S&P500 +0.73%, 러셀 2000 +1.12%)

중국 증시가 개장을 한 이후 상해 종합이 7.72% 급락. 그러나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글로벌 각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. 오히려 중국 정부가 1 조 2 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금리인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안도감을 줌. 한편,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감염증은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 여전히 경제와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주장,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. 특히 감염증 이전 수치이기는 하지만, 미국 제조업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이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준 것으로 추정

더불어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(+3.48%)도 실적에 대한 기대 속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영향. 물론 애플(-0.27%)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아이폰 출하량이 10% 줄었을 것으로 전망되자 약세를 보였고, 에너지 업종 또한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심리가 이어지며 약세를 보이는 등 저가 매수세가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지는 않음.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아이오아주에서 처음으로 개최 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샌더스 후보가 1 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수 상승폭 확대를 제한. 만약 압도적으로 샌더스 후보가 1 위를 차지하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. 결국 미 증시는 장 초반 지표 호전과 감염증 관련 안도감에 힘입어 상승한 이후 개별 종목 이슈 및 미 대선, 추가적인 감염증 환자 추이등을 기다리며 횡보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종류(%)	Close	D-1	지수종류(%)	Close	D-1
KOSPI	2,118.88	-0.01	홍콩항셱	26,356.98	+0.17
KOSDAQ	646.85	+0.68	영국	7,326.31	+0.55
DOW	28,399.81	+0.51	독일	13,045.19	+0.49
NASDAQ	9,273.40	+1.34	프랑스	5,832.51	+0.45
S&P 500	3,248.92	+0.73	스페인	9,404.70	+0.39
상하이종합	2,746.61	-7.72	그리스	903.47	-0.82
일본	22,971.94	-1.01	이탈리아	23,460.01	+0.96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알파벳 시간 외 3% 하락

엑손모빌(-2.24%)은 국제유가 급락 및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(중립→매도)과 목표주가(72달러→59달러)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. 셰브론(-0.79%)과 EOG리소스(-2.06%) 등 여타 에너지 업종 또한 약세를 보였으나, OPEC+의 추가 감산 기대가 높아지자 낙폭은 제한되었다. 애플(-0.27%)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아이폰 출하량이 10%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장중 한때 1%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.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으로 관련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 또한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었다. 쿠팡(+1.61%), 스카이웍(+1.66%) 등 부품주는 강세를 보였다. AT&T(-1.75%), 버리아존(-2.39%)은 코로나로 인한 5G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.

반면, 마이크론(+1.30%), 인텔(+0.77%) 등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. AMAT(+2.98%)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24% 상승했다. 테슬라(+19.89%)는 슛커버링과 네바다에서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 실적이 개선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. MS(+2.44%)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. 알파벳(+3.48%)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후 시간 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3% 하락 중이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-1.72%	대형 가치주 ETF(IVE)	+0.36%
에너지섹터 ETF(OIH)	-0.28%	중형 가치주 ETF(IWS)	+0.69%
소매업체 ETF(XRT)	+1.05%	소형 가치주 ETF(IWN)	+0.93%
금융섹터 ETF(XLF)	+0.70%	대형 성장주 ETF(VUG)	+1.31%
기술섹터 ETF(XLK)	+1.32%	중형 성장주 ETF(IWP)	+1.03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+2.01%	소형 성장주 ETF(IWO)	+1.31%
인터넷업체 ETF(FDN)	+1.46%	배당주 ETF(DVY)	+0.66%
리츠업체 ETF(XLRE)	+0.10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+0.38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0.64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+0.34%
바이오섹터 ETF(IBB)	+1.77%	미국 국채 ETF(IEF)	-0.08%
헬스케어 ETF(XLV)	+0.91%	하이일드 ETF(JNK)	+0.04%
곡물 ETF(DBA)	-0.19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24%
반도체 ETF(SMH)	+1.37%	Long/short ETF(BTAL)	-0.34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00.02	-1.34%	-4.27%	-12.81%
소재	369.72	+2.14%	+0.63%	-1.38%
산업재	683.84	-0.04%	-1.09%	-2.20%
경기소비재	997.96	+0.60%	+2.29%	+0.75%
필수소비재	648.19	-0.01%	-0.49%	+1.19%
헬스케어	1,164.64	+0.93%	-1.65%	-1.33%
금융	500.06	+0.60%	+0.76%	-2.05%
IT	1,695.99	+1.32%	+1.51%	+4.58%
커뮤니케이션	185.16	+1.27%	-0.07%	+1.17%
유틸리티	351.22	+0.33%	+1.45%	+8.34%
부동산	243.94	+0.13%	-1.29%	+2.04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상승 출발 후 미 대선 영향 주목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61% MSCI 신흥 지수 ETF 도 1.33% 상승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13 계약 순매도 했으나 1.60pt 상승한 286.80pt 로 마감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90.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가 급락 했으나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 장중 상승하기도 했다. 이런 가운데 유럽을 비롯해 미 증시도 강세를 보이는 등 안도감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더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비록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,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, 세계보건기구(WHO)가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다.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아주 적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.

한편, 한국 장중에 미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할 아이오아 주 경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만약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압도적으로 1 위를 차지할 경우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를 주장하고 대 중국 강경 정책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전국적으로는 조 바이든(27.2%)이 여전히 1 위를 기록 중이나 최근 버니 샌더스(23.5%)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첫 경선지인 아이오아에서 압도적으로 샌더스가 1 위를 차지할 경우 그 폭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민주당 아이오아주 경선 결과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(2/2 아이오아주: 샌더스 23.0%, 바이든 19.3%, 부티지지 16.8%, 워런 15.5%)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제조업지표 6 개월 만에 확장세로 전환

1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(47.8)이나 예상(48.7)을 크게 상회한 50.9 로 발표되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이전 수치이기는 하지만, 6 개월만에 확장세로 전환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.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(47.6→52.0), 생산지수(44.8→54.3)은 물론 고용지수(45.2→46.6)이 개선된 가운데 재고지수(49.2→48.8)은 하락했다.

12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.2% 감소해 지난달 발표치(MOM +0.7%)는 물론 예상(mom +0.5%)을 하회했다. 특히 공공부문이 전월 대비 0.4% 감소했으며 민간부문 또한 전월 대비 0.1% 감소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유가 하락세 지속

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지자 WTI 가 장중 한때 50 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. 그동안 OPEC+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 감소에 기대 강세를 보여왔으나, 이번 사태로 급격한 수요 충격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. 다만, OPEC+가 2 월에 회동을 가져 하루 50 만 배럴 추가 감산을 시행하거나 감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.

달러화는 WHO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대가 중국을 제외하면 제한적이라고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. 특히 이 여파로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이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. 여기에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 협상을 두고 EU 가 영국이 EU 규정 준수를 요구한 반면 영국은 규칙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험난한 경로가 예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 한편,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7 위안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다.

국채금리는 ISM 제조업지수가 6 개월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전환하자 상승했다. 다만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되었다.

금은 달러 강세 및 WHO 의 발표로 안도감이 유입되자 하락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7.97% 철근도 8.02% 하락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50.11	-2.81	-5.70	Dollar Index	97.824	+0.45	-0.13
브렌트유	54.45	-3.83	-7.05	EUR/USD	1.106	-0.30	+0.37
금	1,582.40	-0.35	-0.08	USD/JPY	108.68	+0.30	-0.20
은	17.670	-1.90	-2.14	GBP/USD	1.2997	-1.58	-0.46
알루미늄	1,686.50	-2.06	-4.39	USD/CHF	0.9662	+0.29	-0.35
전기동	5,525.00	-0.75	-3.80	AUD/USD	0.6691	-0.01	-1.04
아연	2,146.00	-2.45	-4.20	USD/CAD	1.3291	+0.41	+0.74
옥수수	378.75	-0.66	-0.46	USD/BRL	4.2466	-0.85	+0.85
밀	555.50	+0.32	-2.93	USD/CNH	7.0152	+0.24	+0.41
대두	877.00	+0.52	-2.26	USD/KRW	1195.00	+0.27	+2.25
커피	97.90	-4.63	-8.16	USD/KRW NDF1M	1190.91	-0.39	+1.18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522	+1.53	-8.59	스페인	0.239	+0.70	-3.90
한국	1.555	-0.70	-14.50	포르투갈	0.270	+0.90	-3.30
일본	-0.057	+0.90	-1.30	그리스	1.179	+2.30	+1.70
독일	-0.442	-0.80	-5.70	이탈리아	0.949	+1.70	-8.60